

2018년 6월 27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대형 기술주가 상승 주도

애플 +1.24%, 아마존 +1.68%, 페이스북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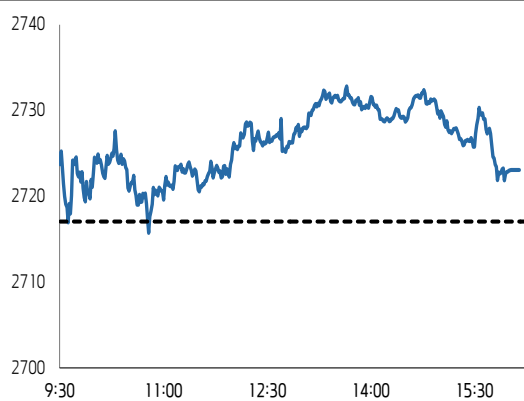
미 증시 상승 요인

유럽증시는 BHP 빌리톤(+2.51%) 등 원자재 주가 상승했으나,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으로 호조 마감. 미 증시는 연준 위원들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과 점진적인 금리인상 시사하는 발언에 힘입어 상승. 특히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대형 IT 기업들과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은 에너지 업종이 상승 주도. 다만, 미국 발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상승폭은 제한(다우 +0.12%, 나스닥 +0.39%, S&P500 +0.22%, 러셀 2000 +0.66%)

미 증시는 여러 인사들의 발언과 개별 기업 이슈에 힘입어 상승. 먼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분열은 매우 고통스럽다, 또한 연준의 직무는 불확실성 속에서 더욱 어려워졌다” 라고 주장하며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 표명. 다만, “연준은 경제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라고 언급. 로버트 카플란 달라스 연은 총재는 “멕시코와의 무역은 일자리와 경쟁력을 향상 시킨다” 라고 주장. 대체로 연준 위원들은 트럼프 발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 이와 함께 미 국무부가 “각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11월까지 중단해야 한다” 라고 발표.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국제유가(WTI)는 3% 넘게 급등하며 70 달러를 상회

한편, 대형 IT 기업들 또한 미 증시 상승을 주도. 애플은 일부 신규 제품에 대한 기대, 아마존은 프라임 고객 증가 소식, 넷플릭스는 미국 가입자 증가가 기대된다는 소식에 힘입어 상승. 이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우호적인 반응. 마이크로는 UBS 가 투자의견을 매도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상승. 이렇듯 미 증시 상승을 이끈 종목들의 특징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이라는 점.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은 S&P500 2 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년 대비 19% 증가 전망하고 있어 다가오는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350.92	-0.30	홍콩항셱	28,881.40	-0.28
KOSDAQ	831.40	-0.55	영국	7,537.92	+0.37
DOW	24,283.11	+0.12	독일	12,234.34	-0.29
NASDAQ	7,561.63	+0.39	프랑스	5,281.29	-0.05
S&P 500	2,723.06	+0.22	스페인	9,637.40	+0.20
상하이종합	2,844.51	-0.52	그리스	768.89	-1.05
일본	22,342.00	+0.02	이탈리아	21,419.27	+0.3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 기술주 상승

애플(+1.24%)은 내년에 새로운 Airpod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더불어 향후 실적에 대한 낙관적인 분석도 영향을 줬다. 큐로브(+1.69%), 스카이웍(+0.43%) 등 관련 업체도 동반 상승 했다. 아마존(+1.68%)은 프라임 회원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이는 내용이 보도되자 상승 했다. 넷플릭스(+3.88%)는 가입자수 증가 소식에 힘입어 상승 했다. 주택건설회사 레나르(+4.86%)는 양호한 실적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했다. KB홈(+2.33%)도 동반 상승 했다.

엑손모빌(+1.13%), 코노코필립스(+1.81%)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급등에 힘입어 상승 했다. 마이크로소프트(+0.00%)는 UBS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자 상승 했다. 반면, 인텔(-2.05%)은 전일 노무라의 투자 의견 하향에 이어 번스타인도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 한 여파로 하락 했다. 바이오업체 Incyte(-6.97%)도 RBC의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2.39%	대형 가치주 ETF	+0.04%
에너지섹터 ETF	+1.14%	중형 가치주 ETF	+0.16%
소매업체 ETF	+0.40%	소형 가치주 ETF	+0.46%
금융섹터 ETF	-0.34%	배당주 ETF	+0.35%
기술섹터 ETF	+0.40%	변동성 ETF	-4.28%
소셜 미디어업체 ETF	+0.06%	대형 성장주 ETF	+0.49%
인터넷업체 ETF	+0.84%	중형 성장주 ETF	+0.12%
리츠업체 ETF	+0.53%	소형 성장주 ETF	+0.82%
주택건설업체 ETF	+0.79%	신흥국 고배당 ETF	-0.21%
바이오섹터 ETF	-0.43%	신흥국 저변동성 ETF	-0.24%
헬스케어 ETF	-0.31%	하이일드 ETF	0.00%
곡물 ETF	-0.17%	물가연동채 ETF	+0.14%
반도체 ETF	+0.92%	Long/short ETF	-0.0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51.20	+1.40%	-0.18%	+0.95%
소재	362.55	+0.36%	-1.12%	+0.02%
산업재	604.70	+0.33%	-1.81%	-3.23%
경기소비재	873.46	+0.68%	-1.87%	+4.26%
필수소비재	530.37	-0.45%	+1.02%	+4.07%
헬스케어	971.72	-0.28%	-1.09%	+2.46%
금융	443.56	-0.37%	-2.40%	-0.47%
IT	1,223.34	+0.48%	-2.65%	+0.74%
통신	145.66	-0.42%	-0.44%	0.00%
유틸리티	261.73	-0.01%	+2.73%	+2.74%
부동산	200.44	+0.51%	+2.86%	+4.1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실적 시즌 기대

MSCI 한국 지수는 0.37% MSCI 신흥 지수도 0.39%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717 계약) 여파로 0.50pt 하락한 301.9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8.1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대형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했으나, 무역분쟁 이슈가 여전히 발목을 잡으며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 하는 등 투자심리는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은 반등을 주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은 2 분기 S&P500 영업이익 추정치에 대해 전년 대비 19.0% 증가 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기저효과가 있는 에너지, 소재업종을 제외하면 IT(yoy +23.4%)가 이를 주도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 증시 또한 이러한 변화 요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발 무역분쟁 이슈가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게 만들고 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수면아래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한쪽 방향으로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의 특징처럼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군에 대한 저가 매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OSPI 2 분기 영업이익은 지난 3 월말 47.4 조원에서 현재는 52.2 조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추정치가 하향 조정 되던 지난 1 분기와 달라 이번 2 분기 어닝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런 요인을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과 업종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지표 개선

미국의 6 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달(128.8) 보다 하향 조정된 126.4 로 발표되었다. 다만, 현재 여건은 하향 조정 되었으나, 기대지수는 상향 조정되고 있어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

6 월 리치몬드 연은 지수는 전월(16) 보다 상향 된 20 으로 발표되었다. 특히 신규수주가 전월(16) 보다 개선된 22 로 발표되었다.

미국의 4 월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로는 1.05, 전년 대비로는 6.4% 상승 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 유가 70 달러 상회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유량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 출발 했으나, 미 국무부의 이란관련 발표에 힘입어 급등했다. 미 국무부가 11 월 4 일까지 이란의 원유 수입을 하는 모든 국가들은 거래를 중단 해야 한다고 발표 했다. 더 나아가 11 월 4 일 이후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나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도 발표했다. 이러한 미국의 발표에 국제유가는 상승했다.

달러지수는 무역분쟁 우려감이 일부 완화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 완화 여파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한편, 파운드화는 BOE 위원이 “금리인상을 미뤄서는 안된다” 라고 발표 했으나 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았고, 달러 강세 여파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멕시코 페소, 캐나다 달러 등은 달러 대비 소폭 약세를 보였고, 여타 신흥국 환율도 큰 변화보다는 달러 강세 여파로 달러 대비 약 포함권에 그쳤다.

국채금리는 미국 경제지표 개선 및 연준위원들의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표명에 힘입어 소폭 상승하기도 했으나, 무역분쟁이 이어지며 하락 압력 높았다. 한편, 2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율이 2.73 배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12 개월 평균(2.85 배)에 미치지 못했다.

금은 지수 반등과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했다. 구리는 달러 강세 여파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분쟁 우려감이 완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여타 비철금속도 동반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76%, 철근도 0.19%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0.53	+3.60	+8.67	Dollar Index	94.694	+0.43	-0.34
브렌트유	76.31	+2.11	+1.64	EUR/USD	1.1649	-0.47	+0.51
금	1,259.90	-0.71	-1.46	USD/JPY	110.06	+0.26	0.00
은	16.331	-0.46	-0.40	GBP/USD	1.3226	-0.41	+0.39
알루미늄	2,157.50	+0.12	-0.62	USD/CHF	0.9908	+0.35	-0.42
전기동	6,713.00	-0.62	-1.86	AUD/USD	0.7391	-0.31	+0.14
아연	2,840.00	-0.63	-5.40	USD/CAD	1.3306	+0.07	+0.15
옥수수	373.25	+0.47	-0.60	USD/BRL	3.7961	+0.57	+1.32
밀	483.00	-1.53	-1.33	USD/CNH	6.5814	+0.61	+1.61
대두	887.50	-0.89	-2.58	USD/KRW	1114.80	-0.21	+0.51
커피	117.70	+0.43	+1.12	USD/KRW NDF 1M	1118.15	+0.33	+0.73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877	-0.37	-2.01	스페인	1.389	+4.30	+15.30
한국	2.608	+0.80	-0.40	포르투갈	1.871	+4.50	+14.50
일본	0.038	+0.30	+0.40	그리스	4.080	-1.80	-26.40
독일	0.340	+1.30	-3.30	이탈리아	2.885	+6.60	+33.30